

등이었다. 특히 성생활의 만족도는 낮으나 치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여성이 성문제에 대해 거론하기를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여성 성기능 장애의 치료 및 진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SPM-111

한국인의 원위 요골 및 종골 골밀도 연령곡선

Age Curves of Bone Mineral Density at the Distal Radius and Calcaneus in Koreans

민진영¹⁾, 민경복¹⁾, 백도명¹⁾, 조성일¹⁾

(1)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Objectives: Osteoporosis is a major health problem characterized by reduction in bone mass and micro-architectural deterioration in bone tissue resulting in fractures. Establishing reference bone mineral density (BMD) values is crucial for monitoring bone density in Korean population. In this paper, we report the age curves of BMD among subjects with wide age range, and identify the average peak bone mass values.

Methods: A total of 1279 subjects (700 females and 579 males) aged 2-86 years were recruited from a rural area in Korea. Subjects were excluded if they had any history of bone disease or were taking any drugs known to affect bone metabolism or calcium homeostasis. BMD of the distal radius and calcaneus were measured on both sides by DEXA using Lunar PIXI densitometer. Regression analysis with spline smoothing was used to estimate the timing of peak bone mass and trends with age.

Results: Peak BMD of the distal radius was reached at age 35 in females and age 39 in males. Peak BMD of the calcaneus was reached at age 31 in females and age 33 in males. The peak values were respectively 0.49, 0.59, 0.55, 0.60 g/cm². Right side tended to have slightly higher BMD values, but the differences were very small.

Conclusion: BMD increases with age until the peak value is reached at age between 31-39, and then decreases with age. Males reach the peak later with higher values compared to females. BMD at the calcaneus reaches the peak earlier with a higher value compared to BMD at the distal radius.

KSPM-114

추적관찰을 통한 남자 고등학생들의 흡연 시작과 동료 흡연과의 관련성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initiation and peer smoking among male high school students in one year follow up study

박순우¹⁾, 박정환¹⁾, 이상원¹⁾, 김종연¹⁾

(1)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일반적으로 흡연하는 친구를 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흡연 친구 유무와 흡연과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추적관찰을 통해 청소년에게서 친구 흡연이 흡연 시작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대구시 소재 1개 공업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남학생 590 명에 대하여 2003년도 5월에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하였다. 추적 조사된 530명(추적을 89.8%)중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흡연 경험 유무와 시기 등에 대한 응답이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123명을 제외한 407명(1차 조사자의 69.0%)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흡연시작군은 1차 조사 당시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 이후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운 적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동료 흡연은 가장 친한 친구 5명중 흡연을 하는 친구수로 질문하였으며, 그 외에 또래 남학생들에 대한 추정흡연율, 동료 흡연에 대한 이미지, 흡연의도, 자기효능감, 부모 및 형제 흡연 여부, 부모, 형제, 선생님, 친구와의 관계, 부모 학력, 부모 결혼 여부, 가정의 경제적 수준, 종교, 학교성적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PC 11.5를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하였다.

결과: 1차 조사시 흡연경험이 전혀 없었던 222명 중 그 후 1년 동안 흡연을 경험한 경우는 25명(11.3%)이었다. 흡연을 시작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사이에 1차 조사시의 흡연 친구 수와 동료흡연을 추정치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차 조사시에는 흡연을 시작한 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 친구수가 유의하게 많아 졌으며($p<0.001$), 동료흡연을 추정치도 흡연을 시작한 군이 유의하게 높아졌다($p<0.001$). 한편 1차 조사시 흡연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215명 중 담배를 한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거나 한 개비라도 제대로 피워본 적이 있는 경우가 추적조사에서 흡연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흡연 친구수가 유의하게 많아졌다($p<0.001$). 단변량 분석을 통해 흡연 시작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변수로서 다른 학생들의 흡연 모습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무관심한 경우($p<0.01$), 아버지가 없는 경우($p<0.01$),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p<0.05$),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p<0.05$), 어머니 학력이 낮은 경우($p<0.05$)에 흡연 시작을 많이 하였으며, 금연 의도가 약한 경우, 자기효능감이 약한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성적이 낮은 경우에 경계선 유의수준에서 흡연 시작을 많이 하였다($0.05<p<0.1$).

결론: 본 연구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흡연 친구나 동료 흡연을 추정치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거의 흡연 경험이 흡연 친구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 시작의 행동학적 기전이 미국 등 외국의 경우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집단과 좀 더 큰 규모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KSPM-127

폐경 전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Affecting factors of osteoporosis among pre and postmenopausal women